

33층 아파트 20개동 주거구역...갈등국가 멀리 배정

26일 개촌식...U대회 선수촌 미리 가보니

24시간 응급실 병원 배치...메르스 관리실 따로 마련 선수들 4~7명 한집 사용...식당 300여종 음식 제공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140여개국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6일 개촌식을 앞둔 선수촌은 17일 현재 각종 설비 배치와 실내 청소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고 33층짜리 아파트 35개 동 중 22개 동(2445세대)이 선수촌으로 활용되는데 20개동은 선수단과 임원들의 숙소인 주거 구역으로, 다른 두 동과 부속 건물은 국제 구역과 ITO(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s) 구역으로 쓰이게 된다.

국제구역 내 등록센터에서 출입증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선수촌에 입성하면 각국 대표단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MIC·Main Information Center)가 자리잡고 있다.

종합정보센터 오른쪽은 모든 종목의 경기 결과와 통계, 경기 일정, 출전자 목록 등을 관리하는 경기정보센터가, 왼쪽에는 선수촌 병원이 배치돼 있다.

내과, 외과, 치과,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한의과 등 9개 과가 매일 밤 9시까지 진료하며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도 갖추고 있다. 특히 메르스 확산에 따른 메르스 관리실도 별도로 마련된다.

영어, 불어 통역 요원이 상주하는 안내센터와 대회 동안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는 레이트카드(Rate Card) 센터도 함께 들어서 있으며, 국제 구역 뒤로는 경기 전 선수 도핑테스트를 담당하는 도핑관리 종합상황실이 2층 규모로 세워졌다.

국제구역을 지나면 선수들이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할 주거구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수들은 전용면적(59·84·101㎡)에 따라 4~7명이 한 집을 사용한다. 대륙별로 구역을 나눠 숙소를 배정하며 참가 선

수단 규모가 큰 국가는 1~2개 동을 별도로 쓰게 된다.

갈등국가 간에는 같은 대륙에 있더라도 숙소를 분리 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숙소는 선수촌 식당이 있는 주거 구역 중심부에 배정됐으며 북한은 중국 등과 함께 열 동에 배정됐다.

7인실인 84㎡ 크기의 견본 숙소는 방 3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다. 일반 아파트처럼 침대 3개가 놓인 큰 방에는 별도의 화장실과 작은 베란다가 있고, 거실 및 방 2개와 화장실이 따로 있다.

각 아파트 1층에는 공동세탁장과 민원 처리센터 등이 있으며 선수단의 특성에 따라 휴연이 가능한 동과 금연동으로 나뉘어 있다.

주거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식당은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활용했으며 한 번에 최대 3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식당은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을 계율로 하는 '라마단 기간'에 대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며 한식, 양식, 할랄식 등 5개 대륙별 300여종이 제공된다.

바로 옆에는 인터넷 라운지와 카페, 탁구장, 당구장, 이·미용실, 네일숍, 은행, 우체국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실내 휘트니스 센터와 야외 훈련 공간인 주월초등학교 운동장도 인접해 있다.

조직위는 오는 23일 선수촌 시식회를 열어 메뉴와 음료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오는 26일 개촌식을 열고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각국의 선수단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수촌에서는 각종 문제부 2차관과 김윤석 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김응식 조직위 부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2015광주U대회 지원 TF팀 4차회의'를 갖고 메르스 등 안전대책부터 선수촌



세정지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U대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방안, 교통대책, 숙박업소 등 바가지 요금 문제 등 대회 전반에 걸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종 차관은 이날 "메르스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광주U대회가 국가위기 극복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회 관계자 모두 사명감을 갖고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광주U대회를 단지 대학생만의 대회가 아닌 국가 위기극복의 모멘텀이 되는 대회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정치지역인 광주는 어떤 행사도 축소, 연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스타들 기교·땀·열정 감동 기대



(117) 광주유니버시아드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음미체'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 시절에는 국영수가 중요했겠지만, 우리 삶에 여흥과 휴식과 위안을 주는 것은 어쩌면 결국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일 것이다.

특히 지적인 활동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인류가 자부할수록, 역설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일은 그만큼 더 소홀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체력을 연마해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는 스포츠는 각별한 감동의 대상이다. 스포츠 스타들에게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7월 3일~14일) 개막이 다가오자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의 경기모습을 우리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반

가워진다. 개인적으로는 '도마의 신' 양학선의 체조경기를 꼭 관람하고 싶다. 구름판을 밟고 도마를 짚은 뒤 앞으로 돌아서 뛰어올라 몸을 곧게 편 상태로 세 바퀴, 즉 1080도를 비틀어 내려오는 연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얼마만큼 반복해서 훈련했을까? 중력을 거스르는 초인적인 기교 너머에 선수가 쏟았을 땀, 수고, 눈물, 열정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미술에는 건장한 육체미를 지닌 남성누드가 자주 등장한다. 운동선수의 모습이 많은데 달리기, 레슬링 등 체육활동이 그리스 교육의 필수요소였고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나체를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어서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당시 활동했던 조각가 미론(Myron)은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단거리 선수를 청동상으로 표현했다고도 한다. 비록 이 청동상은 전해지지 않지만, 미론이 제작한 '원반 던지는 사람'(기원전 450년 경)의 청동 원작 대신 로마시대



'원반 던지는 사람'

에 대리석 복제본이 전해지고 있어 운동 동작의 순간을 절묘하게 형상화한 그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원반 던지는 사람'은 더 큰 힘으로 원반을 던지기 위해 몸을 굽혀 팔을 위로 돌리고 있다. 박진감 넘치는 동작,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는 찰나에서 아름다운 육체미의 절정을 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안철수 "‘안심 U대회’ 범정부 민관 대책기구 구성해야"

세정지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7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민관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공정성장 해법찾기'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범정부 민관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해 선수와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시,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안심 U대회 정부-민간 공동대책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광주U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행사로서, 이번



달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